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 동시에...

함평 전남보건고, 평택학교로 발돋움

함평군 전남보건고(교장 정병국)는 지난 7월과 9월 의료법인 목포새한상심병원과 화산고려병원과 현장취업실습을 파견하는 MOU체결을 통해 보건간호과에서도 선취업과 후진학을 병행하는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번 MOU체결은 보건간호와 학생이 정규직 간호조무사로 현장실습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2017학년도 간호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정규직인 근무로 월 13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병원 내 생활관에서 숙박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의 혜택까지 대우해주는 조건이다. 학생들은 주간에는 대학을 다니고 야간과 주말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 학비의 생활비를 해결하여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보건고 보건간호와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 병원에 취업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임금 및 대우는 현격히 달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전남보건고는 간호조무사로서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여 간호사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왔다.

3학년 권모학생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도 병행 근무를 하며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도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생계에 대해 학비 걱정을 덜게 되어 대담이 기쁘다고 말했다.

3학년 보건간호와 52명 학생들은 9월 10일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루고 9월 28일부터 49명(공무원시험반 2명, 유학 1명 제외)이 전남도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장기취업, 취업과 대학진학 병행 등 15개 병·의원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진도 조도초, 라스코 광명동굴전 체험

진도군 조도초등학교(교장 남희경)는 9월 20~22일, 2박 3일간 광명시와 광명시사외복지협의회의 초청으로 2박3일간의 꿈을 찾아 떠나는 광명동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전교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광명시 초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를 받아 탄천종합운동장을 견학했다.

본, 분교 학생 60명과 인솔교사 10명은 6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떠나 다양한 체험과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보는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첫날은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과 광명시업사이를전관, 충현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우리역사의 아픈 기억과 인간의 위대함, 자연의 신비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 한 5학년 학생은 "귀한 광물을 채취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안에서 희생된 우리 조상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둘째 날 학생들은 문화박물관과 잠월드 체험을 했다.

보다 훨씬 많은 직업의 세계를 보고 놀라워했다. 일정을 마무리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를 받아 탄천종합운동장을 견학하였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제규격운동장이 신기했고 직접 볼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날 밤 숙소에 머물렀다.

셋째 날은 부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문화단지로 향했다. 정안문을 통해 들어간 사비궁에서 백제 역사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안내로 백제궁중대궐로를 직접 시연과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조도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독서를 즐겨한 덕분에 역사에 관심이 많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체험학습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좋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었다. 1학년 학생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남희경교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들의 캠프로 밤을 밝히다

장성 분향초, 가족 캠프 실시



장성군 분향초등학교(문재은 교장)는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가족 캠프'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운동장에 가족들과 함께 직접 텐트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식사 후 강담으로 이동하여 '내 자녀 비로알기' 프로그램으로 미술 심리검사를 하였다.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생각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하얀 등에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족 소원 등' 만들기를 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다졌다. 어두워졌던 주변이 가족 소원 등으로 인해 밝아지면서 한층 분위기가 더해졌다.

캠프에 참여한 5학년 김수민 학생은 "부

모님과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기쁨을 뽐내며 하였다. 6학년 학부모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도 소통의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재은 교장은 "이번 캠프로 인해 서로 이

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다.

김상문 기자 ksw@

무안현경복초, 무안항도갯벌축제서 직접 부스 운영

청소년 비즈쿨(Bizcool)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소규모학교 특성에 맞게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경복초등학교(교장 강홍제)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린 무안항도갯벌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여 기업가 정신을 체험했다. 청소년 비즈쿨(Bizcool)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뜻으로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로 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진취성을 기르기 위해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경복초등학교 4~6학년들은 학기 중에 기증금에부의 리스클레이부를 운영하면서 배운 기술로 무안갯벌축제기간 중

안 학생들이 관광객들에게 가족공예품을 팔거나 리스클레이부를 체험하게 하여 약 90만원의 판매수익을 얻는 등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6학년 김초희 학생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만든 것을 팔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살까? 조마조마 했는데 관광객들이 좋다고 하면서 많이 사가 기뻐했다"고 했다. 한 편이 수익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지역 봉사 활동이나 장학금, 비즈쿨(Bizcool) 운영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강홍제 교장은 "대도시 학교에 비해서 소



규모학교가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끼를 살리는 좋은 점이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 축제를 준비하고 현경복초 비즈쿨(Bizcool) 학생들이 배려해 준 무안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홍석범 기자 hsb@

영광교육지원청 Wee센터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센터로 지정

영광교육지원청 Wee센터(교육장 김영형)는 2년 연속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Wee센터로 지정되어 지역 내 사이버폭력 대응 및 예방의 선도적 허브역할 수행하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형)은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상담업무담당교사,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영광Wee센터 학생상담지원봉사자 등 상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예비를 위한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과 이론을 시연했다.

또한, 영광초등학교, 영광중앙초등학교에서 9월 9일과 23일 4~6학년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급단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이버 언어예절을 익히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원 기자 jsw@

장성교육지원청, 영·호남 교류사업 연계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만)은 9월 22~23일 이틀간 안동시 일대에서 관내 유·초·중·고·직업강실장 및 장성교육지원청 직원 총 28명을 대상으로 '영·호남 교류사업 연계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안동 전통문화초등학교, 경성박물관 그리고 경성보도청을 방문하여 시설투 등을 견학했다.

또한, 도산서원 및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안동의 전통 문화를 탐방하면서 양 지역에 소재한 서원과 유림 문화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고, 호남과 영남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김성문 기자 ksw@

고흥동강초, 개천예술제서 동상 수상

전남 고흥 동강초등학교(교장 김일배)는 지난 9월 25일 한국음악협회 진주시 부주제로 열린 개천예술제 합주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의 관현악 합주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동강초 관현악부는 시원한 트럼펫과 호른의 울림이 씩씩한 경기병의 행진기 때오르며 하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연주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은 2014년부터 창설 매년 관현악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새소문)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강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은 문화적 기

반 시설이 취약한 편인지 놓여준 학생들의 적성개발과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우수한 강사들을 초청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12개의 관현악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주에 참가한 강제성(6학년)은 "악기를 배우는 동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 상도 받고 연주하는 모습을 좋아해주는 부모님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강초등학교는 앞으로 1인 1악기 익히기 과정을 통해 개인을 소질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선보이며(매년 12월 정기연주회)은 앞으로 또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은택 기자 sdw@

(유) 하나로합정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1)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061)3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

간이상수도청소 :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펜션 등

공간소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현장 등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용 예방

방역

살균

살충